

# “특명! 플레이오프 1차전을 잡아라”

역대 29차례 플레이오프(양대리그 시절 제외)에서 1차전 승리 팀이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경우는 무려 24번이나 된다. 확률로 따지면 83%에 달한다.

역으로 1차전을 패배하고도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은 적은 5번에 불과하다. 그만큼 단기간 승부에선 1차전이 중요하다.

3년 연속 포스트시즌에서 만난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역시 이 사실을 모를지 않다. 때문에 1차전 기선제압을 위해 총력전이 예상된다.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과 NC 다이노스의 김경문 감독은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로 더스틴 니퍼트(36)와 장현식(22)을 각각 예고했다.

페넌트레이스를 2위로 마치고 플레이오프 상대를 기다려온 두산은 ‘가을사사기’ 니퍼트를 일찌감치 1차전 선발로 낙점했다.

니퍼트는 포스트시즌 등판 경험이나 성적에 있어 국내와 외국 선수 통틀어 단연 최고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트시즌 등판만 무려 14차례나 된다. 통산 14경기에서 74%이닝을 소화하며 1회 포함 4승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53을 기록 중이다.

2015년 플레이오프 1, 4차전에 나와 데일리 MVP와 함께 시리즈 MVP를 수상했다. 그해 한국시리즈 2차전 MVP도 니퍼트의 차지였다.

역대 29차례 PO중 1차전勝 KS진출 83%

두산 니퍼트 vs NC 장현식 선발 맞대결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투수로 확정된 두산 베어스 더스틴 니퍼트(왼쪽)와 NC다이노스 장현식.

지난해 NC와 한국시리즈에서도 1선발로 나서 80이닝 무실점하며 팀에 승리를 안겼다. 두산은 1차전 승리를 발판삼아 파죽지세로 4연승하며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했다.

올 시즌에는 30경기에 나서 14승 8패 평균자책점 4.06을 기록했다. NC 상대로는 4경기에 선발 등판, 1승 1패 평균자책점 5.56로 썩 좋지는 않았지만 어디까지나 정규

시즌 내용이다.

플레이오프에서는 NC를 상대로 3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자책점 1.27로 매우 강력했다. NC로서는 오금이 저릴 만한 기록이다.

2년 연속 두산에 패하며 고배를 마신 NC는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인상적인 투구를 선보인 장현식을 첫 주자로 내보낸다.

와일드카드결정전에 이어 준플레이오프에서 롯데와 5차전까지

가는 혈투를 치른 NC는 마운드 운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에이스 에리 헤커는 제몫을 다했지만 1차전과 5차전 선발 등판하며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3차전에서나 출격이 가능하다.

와일드카드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 등판했던 제프 맨립은 안정감은 있지만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없어 자칫 불펜진에 과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김경문 NC 감독이 꺼내든 장현식 카드는 확실히 틀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지만 올 시즌 NC 투수들 중 누구보다 두산 타자들을 많이 상대했다.

두산전 6경기에 등판해 33이닝을 소화하며 1승 3패 평균자책점 4.91다. 결과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탈삼진 32개를 잡아내며 공격적인 투구를 했다. 피안타율 0.252로 나쁘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13일 잠실 두산전에서는 8%이닝 동안 2실점(비자책)으로 역부족 좋은 기억이 있다.

롯데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7이닝 3피안타 1실점(비자책) 호투를 펼친 것 역시 1차전 선발로 낙점한 이유다.

김경문 감독은 “장현식이 두산전 성적에 좋았다. 최근 구위도 좋아 결정했다”며 믿음을 드러냈다.

기록이 있는 편이지만 롯데와 경기 때처럼만 던져준다면 니퍼트를 상대로도 충분히 기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평가다.

뉴스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이 여자골프 세계랭킹 21위에 올랐다.

## 고진영, 세계랭킹 12계단 ‘경총’ 21위

유소연 1위 지켜...2위 박성현, 1위와 격차 0.25포인트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22·하이트진로)의 세계랭킹이 12계단 상승했다.

16일 발표된 볼렉스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고진영은 종전 33위에서 12계단 오른 21위다.

고진영은 전날 막을 내린 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세계랭킹 2위 박성현(24·KEB하나은행)과 메이저대회 2승의 전인지(28)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LPGA 비회원 자격으로 출전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을 제패한 5번째 선수가 됐다. 세계랭킹도 급상승하며 20위 이내 진입을 눈앞에 뒀다.

유소연(27·메디힐)이 17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KEB하나은행 챔피언십’ 준우승자인 박성현이 2위를 유지했다.

다만 둘의 격차는 지난주 0.78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좁아졌다.

이번 주 대만에서 열리는 ‘스웨일스 스키즈 LPGA 타이완 챔피언십’ 성적이 따라 둘의 위치가 뒤바뀔 수 있다.

유소연 박성현과 함께 주요 부문 타이틀 경쟁을 펼치고 있는 렉시 톨슨(미국)이 3위로 변동이 없었다.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3위를 한 전인지가 3계단 끌어 올려 4위에 안착했다. 안나 노르드스트룀(스웨덴), 평산산(중국), 에리아 주타누간(태국)이 1계단씩 밀려 5~7위를 했다.

지난주 2라운드를 앞두고 기권했던 김인경(29·한화)이 8위,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9위를 지켰다. 브룩 헨더슨(캐나다)은 박인비(29·KB금융그룹)와 자리바꿈하며 톱10에 진입했다.

공동 14위로 선전한 신에 최혜진(18·롯데)은 2계단 상승하며 개인 최고인 16위에 올라 언니들을 위협했다.

## ‘2017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감독 선정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17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으로 분데스리가의 전설로 불리며 아시아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64)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2차 스포츠영웅선정위원회를 열고 7명의 최종 후보자들을 심의한 결과, 선정위원회 구성과 국민지지도 정량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 받은 차범근 전 감독을 선정했다.

차범근 전 감독은 축구 국가대표 A매치 최다출장(136경기)과 최다골(59골) 기록을 갖고 있다.

서독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며 308경기 98득점(1978~1989), FA컵 27경기 출전과 13득점이라는 업적도 남겼다. 1979~1980년과 1987~1988년 두 차례 UEFA컵 우승 주역으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점 역시 높이 평가받았다.

은퇴 후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프로축구팀 감독, 유소년선수 양성, 체육행정가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대한민국 축구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975년 체육훈장 기린장과 1979년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상한 공적도 평가 받아 올해의 스포츠영웅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영웅 선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일 반국민, 추천단(45명), 체육단체(92명), 대한체육회 출입기자(30명)를 대상으로 70명의 후보자를 추천 받았다.

2017년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현 액식은 다음달 29일 서울올림픽파크 호텔에서 개최된다.

## 세계 남자골프 스타, 오는 19일 제주에 모인다

더 CJ컵@나인브릿지스, 한국 첫 PGA 정규대회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2016~2017시즌 5승과 함께 ‘올해의 선수’에 빛나는 저스틴 토마스(미국) 전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3차전 BMW 챔피언십 우승자 마크 레시먼(호주) 등 세계 남자골프를 빛낸 이들이 제주에 모여든다.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제주 서귀포에 있는 ‘클럽 나인브릿지스’(과 72·7196어드에서 열리는 ‘더 CJ컵@나인브릿지스’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PGA 정규대회다.

2015년 인천에서 열린 남자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이 미국팀과 인터내셔널팀이 명예를 건 상징적인 대결이었다면 이번에는 총상금 925만 달러, 한화로 약 10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상금을 걸고 세계 톱랭커 선수들과 국내 선수 78명이 스타결을 펼친다.

대회는 주최하는 CJ그룹은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PGA 투어 대회지만 최고의 대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우선 총상금 925만 달러는 PGA 투어 대회 중에서도 상급 규모만 놓고 보면 특급 대회 수준이다.

PGA 투어 정규 대회 상급규모가 보통 600만~700만 달러다. 상급 1000만 달러 이상인 메이저 대회와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일부 대회를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다.

◇ ‘올해의 선수’ 스윙 직접 볼 기회

출전 선수도 화려하다. 지난 시즌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 우승과 함께 5승을 거두고 페덱스컵 포인트 1위를 차지한 토마스가 대표적이다. 세계랭킹 4위 토마스는 지난 시즌 PGA 투어를 뜨겁게 달궜다.

CJMB 클래식에서 2연패에 성공한 뒤 전년도 우승자만큼이 출전하는 왕중왕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

어 ‘쇼니 오픈’에서는 ‘꿈의 69타’를 기록하며 주목 받았고,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을 거머쥐었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는 2차전 델 테크놀로지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최종 1위에 올라 100만 달러의 보너스와 함께 ‘올해의 선수’에 선정되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전 세계랭킹 1위이자 투어 통산 10승의 데이는 이번 대회를 통해 추락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

2015년 5승, 2016년 3승을 거뒀던 데이는 지난 시즌 ‘AT&T 바이어넬슨’에서 준우승 1차례에 그쳤다. 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한 이래 최악의 성적이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 잔더 셔클레(미국)와 3차전 ‘BMW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레시먼 등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들은 물론 팻 페레즈와 다니엘 버거(미국) 등 지난 시즌 우승자 가운데 20명 이상이 CJ컵 무대에 선다.

◇ ‘꿈의 무대’ 직행 티켓 잡아라

이번 대회에는 총 16명의 한국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제5의 메이저라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김시우(22·CJ대한통운)를 비롯해 ‘말형’ 최경주(47·SK텔레콤), 강성훈(31), 배상문(30), 안병훈(26·CJ대한통운), 김민휘(25) 등 이미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일찌감치 출전을 확정했다.

PGA 투어 시드가 없는 나머지 10명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황중곤(25·훈마)은 ‘KPGA 선수권’ 정상에 오르며 가장 먼저 출전권을 확보했다.

뉴스스

## 준우승 박성현, 각종 타이틀

경쟁 한발 앞선 것에 ‘만족’

상금순위 2위와 격차 벌려...평균타수서도 선두 등극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아쉽게 우승을 놓치며 세계랭킹 1위 등극의 기회도 다음으로 미뤘지만 각종 타이틀 경쟁에서 한발 더 앞서게 됐다.

박성현은 15일 인천 영종도에 있는 스키야드72 골프클럽(과72)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71언더파 271타로 1위 고진영(22·하이트진로)에 2타 뒤진 단독 2위를 했다.

2타 차 공동 2위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해 중반까지 고진영과 선두 자리를 놓고 앞치락뒤치락하며 경쟁을 벌였지만 결정적인 퍼트에서 실수를 범하며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박성현으로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유소연(27·메디힐)을 밀어내며 한국 선 수로는 4번째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준우승에 그치며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다만 올 시즌 190만9667달러로 시즌 상금랭킹 1위를 달린 박성현은 준우승 상금 18만2966달러를 더해 209만2633달러(약 29억6000만원)로 상금왕 경쟁에서 앞서나가게 됐다.

평균타수 부문에서는 69.01타가 되며 1위였던 렉시 톨슨(미국·69.125타)을 2위로 밀어내고 선두로 올라섰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는 12점을 추가하며 142점으로 1위 유소연과 2위 톨슨과 격차를 좁히는 성과도 이뤘다.



박성현은 “이렇게 2위로 마무리 됐지만 솔직히 잘 했다고 생각한다. 후반에 아쉬운 홀이 많았지만 마지막 마지막 조에서 4타를 줄여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진영이가 너무 잘해서 타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래도 만족스러운 라운드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평균타수와 상금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데 대해서는 “솔직히 욕심이 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조금 더 간격이 벌어져 상이 더 가까이 오니까 좋다”면서 “남은 대회가 5개인데, 토트 클래식만 빼고 다 나간다. 시즌 2승 뒤 목표는 1승 더 추가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우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인왕을 일찌감치 굳힌 박성현이 현재 선두인 상금왕과 평균타수 부문은 물론 올해의 선수까지 석권하게 되면 1978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9년 만에 대업을 이루게 된다.